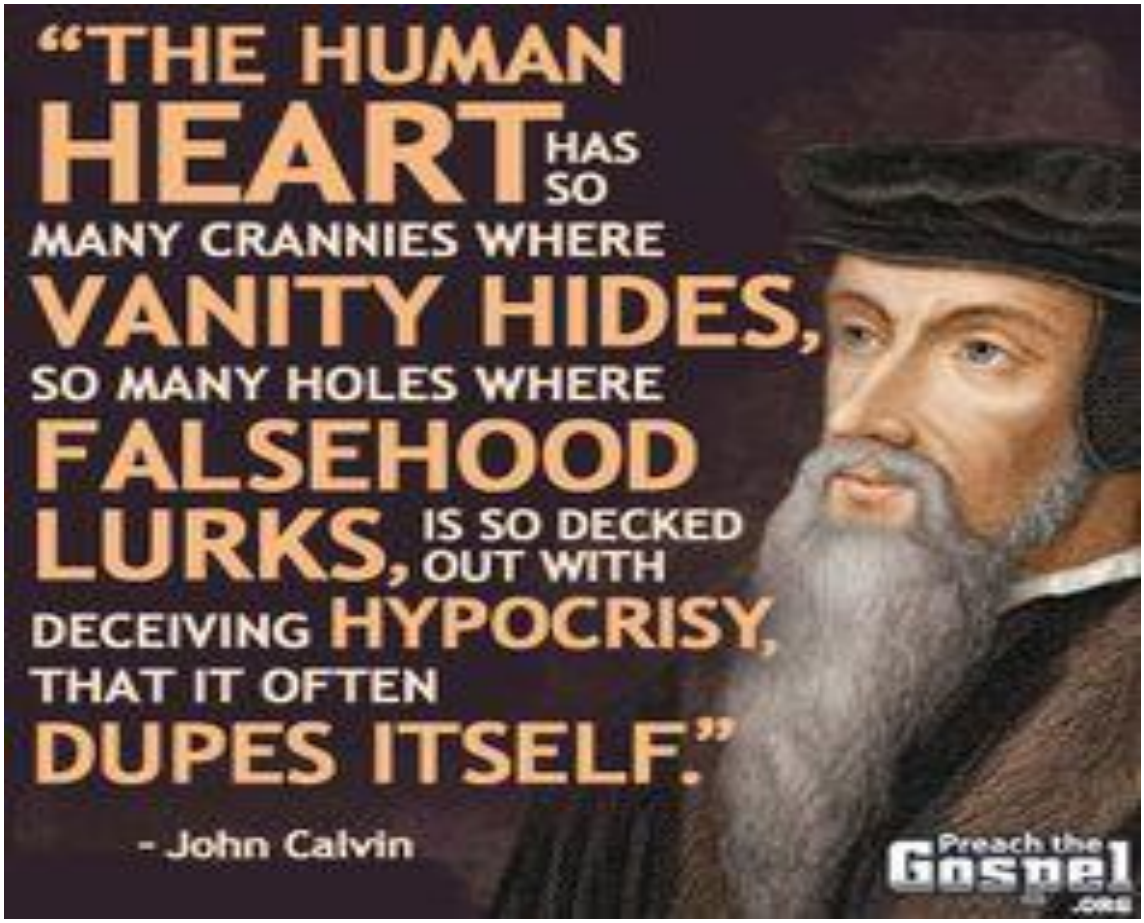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

-The Life of True Christian-



인간의 마음은 거짓과 가식된 외식과 사기가 도사린 많은 구멍들, 곧 허무의 통로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 요한 칼빈

John calvin

전 화 령 역

International Theological College and Seminary in Cambodia

제 1장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 (겸손한 복종)

1. 성경은 생활의 규범이다.

1. 새 생활의 목표는 하나님 자녀의 생활을 통해 나타나는 멜로디와 하모니를 나타내는데 있다. 어떤 멜로디인가? 하나님의 공의의 노래이다. 어떤 하모니인가? 하나님의 의와 그에 대한 우리의 복종으로 일어나는 조화이다. 우리가 하나님 율법의 아름다움 안에서 행할 때만 하나님의 양자됨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이 충분히 회복된 새 생활을 가져오는 능력을 가진다. 그렇지만 본래 사람은 게으르기 때문에 안내의 지침을 따라야만하는 수고에 대한 어떤 자극과 도움을 필요로 한다. 마음에서 나온 반성만으로 옳은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지 못하게 하고 잘못될 수 없게 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활 근거가 되는 원리들을 배우기 위해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2. 성경은 많은 권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루기에 너무 방대하다. 교회교부들이 남겨둔 많운 진실된 말들이나 어떤 학적 논문조차도 성경의 심원성을 규명할 수 없었다. 그래서 참된 경건생활을 위하여 교회교부들의 탁월한 작품을 읽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으나 성경의 근본적 표준을 이해하는 것은 절대 필요하다.

3. 크리스챤 규범을 말하는 그 책의 간결성때문에 다른 것들과 열정적 토론을 벌인다 해도 그 교훈이 무가치하다는 결론을 내리지는 못할 것이다. 철학자들은 일반적인 원리와 특별한 규율을 말하는데 익숙할지 몰라도 성경은 모든 규범 그 자체이다. 철학자들은 야망을 가지고 섬세한 명료성과 정교성을 가진 목표를 갖지만 성경은 아름다운 통일성과 함께 모든 철학자들을 능가하는 확증을 가진다. 철학자들은 허식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성령께서는 소홀히 되어서는 안될 직접적이고 명백한 말로 다양한 방법들을 보여준다.

2. 거룩함이 중요한 원리이다.

1. 크리스챤 생활에 있어서 성경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 하나는 우리가 본래 불의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의를 사랑하게 하려고 율법으로 우리를 교훈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 우리의 신앙경주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간단한 규칙을 보여주는데 있다. 추천할 많은 말씀 중,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원리만큼 탁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흩어진 양처럼 각기 제 길로 나아가 세상의 미로에서 방황할 때 그리스도는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

2.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신비스러운 연합에 관한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거룩이 연합의 통로(Channel)라는 사실을 기억해야한다. 거룩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공로가 아니라 그에게 달라붙어 그만 따를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그가 죄악과 불의와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의 영광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초청에 주목하기 위하여 이것을 명심해야한다. 만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세상을 탐닉하고 싶어 한다면 이 세상의 죄악과 부패의 수렁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고 싶어 한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거해야만 된다고 견책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에 의해서 더럽혀질 수 없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이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자는 올바로 살고 의롭게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다. 거룩하신 분의 성소는 아무 흠 없이 보존되어야만 한다. (레 19:2, 벧전1:16, 사35:10, 시15;1,2, 24:3,4)

3. 거룩함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다.

1. 성경은 거룩의 원리를 보여줄 뿐 아니라 거기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준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화목케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이 되게 하셨다. 철학자들이 유일한 도덕적 의의 체계를 가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복종하고 따르는 것 외에 더 탁월한 시도가 있다면 보여 달라고 요구하라. 철학자들의 가장 고상한 덕은 인간 본성의 삶을 사는 것이지만 성경은 오직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만을 가리킨다. 그리스도 성품을 우리 생활에 나타내는 생각 외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어디 있는가?

2. 주님은 중보자인 그리스도를 닮는 조건으로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셨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창조주를 반역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를 구주로서 인정치 않는 것이다.

3. 성경은 여러 권면으로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복과 우리를 둘러싼 구원을 약속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버지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로서 행하지 않는다면 가장 비열하게 배은망덕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청결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육적 타락으로 더럽히지 말아야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몸의 지체로 연합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허물로서 그를 불명예스럽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 우리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 욕망을 뒤로 밀쳐내고 우리 마음을 그에게 향해야 한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우리 영혼과 육체가 썩지 않고 결코 쇠하지 않는 면류관을 받기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날까지 순전과 순결로 자신을 지켜야한다. 이것이 행위에 관한 적절한 법이 설 수 있는 최상의 기초가 된다. 철학자들은 인간 본래의 위엄에 결코 올라갈 수 없지만 성경은 죄 없으신 우리의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르친다. (롬6:4 이하 8:29)

4. 외적인 기독교만으로는 불충분하다.

1) 단지 교인 자격을 가졌거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물어보자. 아무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하고 다만 복음의 말씀을 통해 그에 대한 참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이다. 사도는 거짓된 정욕으로 더럽혀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가르침을 받은 사람 외에 실제로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외적 지식은 거짓과 위험한 인위적 믿음에 근거를 두고 단지 입술로 떠들석하게 나불거리는 종처럼 복음에 관해 말할 뿐이다.

2) 복음은 말의 교훈이 아니라 삶의 교훈이다. 그것은 이성과 기억으로 배워질 수 없고 그것이 전 영혼을 점유하고 마음의 내적 깊숙한 곳에 투영될 때 충분히 이해되어진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랑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주되신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아닌 것을 보여주지 않는가. 우리는 신앙 지식을 첫 자리에 두어야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신앙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습관에 젖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무익한 것이 된다.

3) 철학자들은 생활의 기술을 가르치기 때문에 실제로 헛된 수다쟁이의 무리들로부터 나오는 불명예로 정죄를 받고 사라질 것이다. 여러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입술로만 복음을 가지고 마음에 복음이 없는 사람들을 미워해야한다. 철학자들의 권면은 참 신자들의 확신, 애정 그리고 끝없는 능력과 비교하면 냉혹하고 생명력이 없다.(엡4:20 이하)

5. 영적 진보가 필요하다.

1) 우리는 타락한 신자에게 복음이 절대 완전하게 함다고 주장하지 말고

참된 복음을 얻으려고 심혈을 기우려야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하기 전, 완전한 복음의 삶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우리 중, 최상의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이상에서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절대 완전한 표준에 도달한 교회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발전이 더딘 많은 사람들을 거절하지 말아야한다.

2) 완전함이란 우리가 목표로 하는 마지막 마크이고 우리가 싸워야하는 대상이다. 한편으로 자기 의무를 이루려하고, 다른 편으로 자기 즐거움을 얻기 위해 자기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나님과 타협하는 일은 부당하다. 주님은 섬김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진지하고 악이 없고 거짓이 없는 단순한 마음을 원하신다. 그 중 믿음은 거룩과 의를 찾기 위해 하나님에 관한 거짓된 헌신을 뜻하기 때문에 영적 생활과 모순된다. 세상적 육체의 감옥에서 근신으로 절제하는 능력을 충분히 가진 자란 아무도 없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주저하여 멈추고 땅에 기어 다니는 듯한 미소한 발전을 가져옴으로 매우 허약한 가운데 떨어져있을 뿐이다.

3) 그러나 주어진 능력으로 전진하고 시작한 그 여행을 계속하자. 진보가 없는 사람치고 행복한 자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 가기 위하여 지극히 높은 것을 지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우리의 성취가 적다는 이유 때문에 절망하지 말아야한다. 비록 실족했다 해도 우리의 수고는 오늘이 내일을 지나치지 않을진대 결코 잃어지지 않을 것이다.

4) 영적 발전의 한 가지 조건은 우리가 진지하고 겸손하게 머물러 있는 것이다. 생각 속에 우리의 목적을 지키고 우리의 목표를 향해 전진하자. 교만에 빠지지 말고 죄악의 열심에 집착하지 말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구하고 찾으며 세상의 모든 유약함에서 자유하게 될 때만 그곳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그와의 충분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게 될 완전한 선에 도달하기까지 더 높은 거룩의 경지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확고하게 세워가자.

제 2장 자아부인

1.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1) 거룩한 법은 생활 규범이 잘 정돈된 계획을 포함한다. 그러나 탁월하고 중요한 원리로 사람을 인도하는 것은 하늘 스승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거룩하고 기쁘게 받으실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은 신자의 의무이다. 바로 이것이 유일한 산 제사이다. 거룩의 원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말씀에 나가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생각이다. 그것은 그의 영광을 위해서만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묵상하고 행하는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불의가 없다면 바쳐진 것은 불 경건을 위해 사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2) 만일 우리가 자신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면 어떤 잘못을 벗어나 모든 행동이 어떤 목적에 의해 인도되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따라가지 말아야한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에 대하여 욕망을 구하지 말아야한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유익을 잊어 버리자. 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를 위하여 살고 죽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의 지혜와 의지가 모든 행동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 우리의 유일한 합법적 목표이신 그 분의 지도를 받자.

3. 자신의 것이나 이성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께 항복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큰 진보가 있겠는가? 사람을 파멸로 인도하는 가장 치명적인 독소는 자신 안에 숨어있고 지혜와 의지에 숨어있는 자랑이다. 안전한 피난처란 단순히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데 있다. 우리의 첫 스텝은 자신을 벗어나 우리의 모든 힘을 주님 섬기는데 드리는데 있어야한다.

4. 주님에 대한 섬김은 분명한 복종을 포함할 뿐 아니라 죄악의 욕망을 던져 버리려는 사모심과 성령의 지도에 전적으로 항복함에 있다. 바울이 마음의 갱신이라고 하는 성령에 의한 삶의 변화는 실제적 생활의 시작이고 이방 철학자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방 철학자들은 이성을 생활과 지혜와 행동의 유일한 안내자로 시작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철학은 우리의 이성을 성령님께 항복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이것은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다스리시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롬12:1, 엡4:23, 갈2:20.

2.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이 자아부인이다.

1) 그러므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그의 영광의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만을 구하자. 자신을 잊어버리고 이기적 모든 일을 경홀히 여김이 우리를 크게 유익하게 할 것이다. 그럴 때,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과 그의 명령에 신실하게 몰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이 모든 개인적 이기적 생각을 거절하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부의 욕망, 권력의 욕망, 인간의 기호를 떠나 거짓된 욕망을 버리고, 은밀한 악을 포함한 인간적 영광에 대한 많은 갈망을 버리라는 뜻이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자기 생애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 여유를 두고 준비해야만 한다.

2) 그리스도인은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법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하며 은밀한 생각들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한다.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명하신 자아 부인이 마침내 마음의 욕망을 모두 지배할 것이다. 자아부인은 자만, 거만, 혹은 헛된 영광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탐욕, 방종, 사치, 음란, 자애에서 오는 죄악의 여지 역시 남겨 두지 않는다. 자아부인의 원리가 없는 사람은 최소한의 수치도 없이 가장 큰 악에 빠지고, 어떤 덕이 드

러나면 자기 영광을 위해 개발된 열심으로 질식당하게 될 것이다. 자아부인에 대한 주님의 법을 믿지 않고도 사람들 앞에서 기꺼이 덕을 세우는 단순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3) 자아부인 원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칭찬을 사랑하는데서 나온 유익을 따라갔다. 심지어 덕이란 자신을 위하여 간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한 어떤 철학자들이 많은 오만으로 부풀리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만을 실행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외에 까닭 없이 분명한 유익을 바란다. 하나님은 평판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과 자만과 허황된 마음으로 채워진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신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이미 상을 받았다"고 했으며 현재의 창기와 세리들이 그들보다 하늘나라에 더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4) 옳은 것을 추구하고 싶어하고 동시에 자아부인으로부터 물러서고 싶어하는 사람의 장애물에는 마지막이란 한계가 없다. 인간 영혼에 숨겨있는 악의 세계가 있고 그리스도인의 자아부인이 이 모든 일의 치료책이란 사실은 예로부터 참되이 관찰된 것이다. 이기주의를 포기하고 자신의 유일한 목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을 것이다.

3. 자아부인은 근신, 의, 절제를 포함한다.

1) 사도 바울은 디도를 권할 때 잘 정리된 간단한 생활 개요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딛2:11-14) 바울은 우리

를 자극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고 참된 예배를 위해 두 가지 중요한 장애물을 제하라고 한다. 이는 본성으로 크게 기울어진 불경건과 그것이 억누르는 세상적 정욕이다. 불경건은 미신을 의미할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경외심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다. 그리고 세상 정욕은 육적 애정을 의미한다. 바울은 우리에게 두 율법 판과 모순되는 이전 욕망을 버리고 우리 자신의 이성과 의지가 독점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촉구한다.

2) 바울은 새 생활의 모든 행동을 근신, 의, 경건, 세 가지로 요약한다. 근신이란 순결과 절제뿐 아니라 일시적 축복을 순수하고 검소하게 사용함과 가난 속에서의 인내함을 의미한다. 의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정당한 값을 받기 위해 행하는 모든 공의의 의무를 포함한다. 경건이란 우리를 세상 오염으로부터 구분시키고 참된 거룩으로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근신과 의와 경건이 함께 연결될 때 절대적 완전함이 만들어진다.

3) 모든 육적 생각을 버리고 거짓된 욕망을 포기하며 부패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우리 형제들에게 몰두하는 천사의 삶을 사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다. 모든 올무로부터 마음을 구하기 위하여 바울은 우리 관심을 복스러운 영원한 소망에 둠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격려한다. 그리스도가 한번 구속자로 나타난 것처럼 그가 얻은 구원의 유익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두 번째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묶으시고 천국 영광을 향한 바른 열심을 갈망치 못하게 하는 매력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의 이방인과 순례자로 살아야한다고 가르치며 신령한 기업을 잃지 말라고 가르치신다.

4. 참된 겸손은 이웃을 존경하는 것이다.

1) 자아부인은 부분적으로 사람과 관련이 있고 대부분 하나님과 관련을 갖는다. 성경이 우리에게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증진시킴에 심혈을 기울이라고 할 때, 우리의 죄악의 성품을 먼저 치

료하기 전,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때 이것을 명하셨다. 우리 모든 사람은 자애에 대하여 너무 어두워 있고 집착되었기 때문에 각 사람이 스스로 높이는 권한을 가지지 않고 자신과 비교하여 이웃을 과소평가하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모든 탁월한 은사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이 자신의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교만으로 부풀리고 퍼뜨릴것이다.

2) 우리는 자신에게 가득 찬 악을 다른 사람에게 숨기면서 그들이 하찮다는 생각으로 자신에게 아첨을 떨 뿐 아니라 가끔 덕으로서 그것을 가리운다. 우리가 스스로 예찬하는 재능이나 더 나은 재능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다면 다른 사람의 탁월함을 인정하지 않기 위하여 심한 악으로서 그들을 경멸하고 무시해버린다. 다른 사람에게 악이 있다면 그들을 예리하고 심각하게 비판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부풀린다. 증오는 인간의 안녕을 높이 평가할 때나 일반적인 운명에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자라난다. 그 결과 우리가 그렇게 저급한 것처럼 이웃을 심한 교만으로서 멸시한다.

3) 가난한 자는 부자에게, 일반인은 높은 자에게, 종은 주인에게,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학자에게 굴복하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이들은 스스로 아첨하며 자기 가슴에 한 나라를 세워나간다. 모든 이들은 독선적이며 다른 사람들의 이상과 행동에 대하여 경멸한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다툼이 있다면 쏘는 독소가 분출되기 마련이다. 사람들이 모든 일에 즐거움과 기쁨을 발견할 때 그 이웃에게서 어떤 온유함을 발견한다. 그러나 그들이 비난을 당하고 어지러워진다면 어찌 좋은 유머를 유지할 수 있을까?

4) 거짓된 욕망과 자애를 즐기며 사는 것은 마음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 틀림없다. 우리가 성경 교훈을 듣는다면 우리의 탈란트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임을 기억해야한다. 우리가 재능을 자랑한다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부족을 증거하는 것이다. 바울은 “너는 무엇이 다른가? 모든 은혜를 받았는데 마치 받지 않은 사람처럼 어찌하여 자랑하느냐?” 라고 말했다. 우리는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고 인정하며 진실로 겸손해야한

다. 그럴 때 우리는 바람에 날리지 않고 낙담을 느끼는 큰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5) 반대로 다른 사람이 가진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도둑질하는 것이 우리 안에 큰 악이란 사실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것의 주인을 귀하게 여기자. 이웃의 허물을 바라보고 아첨으로 그들을 격려하지 말자. 각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을 보이는 것이 우리 의무이기 때문에 이웃의 허물을 상관치 말자. 그들이 누구든지 이웃의 명예와 평판에 관심을 쏟는다면 우리는 적절함과 선한 유머와 예의와 친밀함을 가지고 행해야한다. 이는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마음 깊은데서 이웃을 존경하는 것외에 다른 방법으로서 참된 온유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롬12:10, 빌2:4 고전4:7.

5. 우리는 다른 신자의 유익을 구해야한다.

1) 모든 이기적 생각을 중지하고 자신의 유익을 의무적으로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당신이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고 이웃에 대해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바울이 가르친 사랑의 수고의 의무를 어떻게 행할 수 있겠는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리고 등.

2) 이것이 우리 자신을 구하지 않는 이유라면 자아를 사랑하는 것에 그렇게 심취된 자기 성품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과 자기 일을 소홀히 여김을 쉽게 허락해야한다. 차라리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포기해야한다. 성경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교회의 일반적 덕을 위해 적용되는 조건들을 신뢰함으로 받아들이라고 촉구하며 경계한다. 주님의 모든 은혜의 합법적 사용이란 다른 사람과 자유롭고 친절하게 나누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가 즐기는 모든 축복

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조건이 우리가 받을 경건한 보증보다 더 확실한 규율이며 더 능력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3) 성경에 의하면 우리 개인적 재능은 인간 몸에 있는 지체의 능력에 비교될 수 있다고 말한다. 육체의 어떤 지체도 그 자체의 능력을 갖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 지체 역시 그 자신의 활동으로 유익을 얻지 못하고 전체 몸의 연합을 통한 상호 협력으로서 유익을 얻는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능력이 어떠하든지 이웃 신자들을 위하여 그것을 소유해야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진지하게 사용해야한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언제 어느 날 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 청지기로서 행하고 선한 의지와 도움의 기준이 되고 유익을 주는 것이 사랑의 법에 의해 결정해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자. 무엇보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선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더 좋아해야 한다.

4) 사랑의 법은 상당히 많은 유익을 포함할 뿐 아니라 예로부터 하나님은 작은 생활에서부터 친절을 기억하라고 명하셨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드리지 않은 축복을 즐기는 것이 부당하기에 거룩의 증표로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하셨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우리 손으로 드리지 않거나, 하나님의 은사가 거룩한 삶의 부분이 될 수 없게 드린다면 죄악을 범하는 셈이 될 것이다.

5) 또한 우리가 재능과 은사를 나눠줌으로서 여호와를 풍성하게 하듯이 드린다면 헛된 일이 될 것이다. 우리의 선이 주님에게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시편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땅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것을 수행해야한다. 성경에는 복음 안에서 행하는 사랑의 훈련이 구약 율법 제사를 대신 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구제를 거룩한 제사로 비유했다. 고전13:4-8 시16:2,3

6. 우리는 모든 사람과 친구와 원수의 유익을 구해야한다.

1) 사도는 우리 가까이 있는 위험들 가운데서 우리가 염려 없이 잘 행하게 하려고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는”것을 가르쳤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장점에 따라 불공평한 판단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라고 주님은 명령하셨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현실 가치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다만 모두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피조물임을 생각하라고 탁월한 방법으로 증거한다. 더욱이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새롭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속받은 사람들 가운데 매우 주의 깊게 받아 들여져야한다.

2)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친절한 봉사가 요구된다면 도움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 그가 나그네라면, 주님은 자신의 인을 쳐서 그의 가족의 일원으로 만들어 그의 살과 피를 경멸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가 보잘 것 없고 무가치한 자라도 주님은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귀한 존재로 그를 존중하도록 계획하셨다. 당신이 이웃 봉사에 대해 아무 책임이 없다 해도 주님은 당신이 잊을 수 없는 많은 유익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대를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만드셨다. 그가 최소한의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도 당신에게 그를 추천한 하나님의 형상이 당신 자신과 모든 소유를 그에게 내어주라고 독려한다. 그가 온갖 상처와 간섭으로 당신을 몸서리치게 하여 아무 친절한 배려를 받지 못할 적대자라 해도 당신의 사랑과 모든 호의를 베풀 수 없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당신은 그가 아주 다른 취급을 받아야한다고 말하겠지만 주님은 모든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주님 앞에서 그 책임을 당신이 지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가?

3) 인간 본성과 완전히 모순되는 어려운 일에 이를 수 있는 길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해됨를 친절로 갚으며, 저주를 축복으로 돌리게 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는 인간의 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 형상을 가졌음을 영원히 기억해야한다. 만일 이웃의 잘못을 덮고 지워버리기 위해 그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의 우아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감싸주게 될 것이다. 히13:16 갈6:10, 사58:7, 마5:44, 눅17:3,4

7. 사회적 선으로 충분치 못하다.

1) 우리가 사랑의 의무를 모두 성취하지 못한다면 실제적인 자아부인을 실행할 수 없다. 이것은 단지 누구든지 외적인 방법과 자기 힘으로 섬기는 사람에 의해서 성취되지 못하고, 순수한 사랑의 원리로 섬기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사람이 최상으로 자기 의무를 이행할 때 생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런 표적이 나타나지 못한다. 아주 자유분방하다고 알려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비판과 자만과 오만으로 채워진다. 우리는 사람에 의해 구제 할 수 없을 정도로 교만과 경멸로 채워진 두려운 시대의 비참함으로 침체되어있다. 우리 시대의 부패함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방인의 비난을 받고있는 실정이다.

2) 확실히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시행할 때 웃는 얼굴, 기뻐하는 무드, 공손한 언사 그 이상의 것을 나타내어야한다.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위치에서 자신의 위치를 생각해야한다. 그리고 그 자신이 고난을 당해도 그를 동정하여 마치 자기 힘으로 하듯 기꺼이 도와 주어야한다. 동정하는 마음은 교만과 비난을 사라지게 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마음을 이기게 한다. 육체가 병들어 몸 전체가 회복을 위하여 수고할 때 우리는 이런 병든 지체를 경멸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그 지체를 책임져야한다.

3) 몸의 지체 간에 서로 도와주는 것이 자연 법칙처럼 당연하지만 이것을 거절할 때는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봉사를 수행한다면 다른 의무를 다 하지 못해도 저절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한다. 예를 들면 부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아야하고 다른 사람의 짐을 회피하지 말아야한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이웃에게 빚진 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힘에 지난 사랑으로 그들을 도와야 한다.

8. 하나님의 축복 없이 행복은 없다.

1) 자아부인의 중요한 견해에 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토론해 보자, 이미 말한 많은 것을 반복할 필요가 없지만 진정한 자아부인이 우리를 어떻게 침착하게 하고 인내하게 만드는지 지적하기에 충분하다. 성경은 먼저 생활의 평안과 안정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우리의 정복자요 주인이신 그 분에게 우리의 사랑을 돌려야 한다고 말한니다. 허세와 헛된 과시일 뿐인 부와 명예에 대한 갈망, 능력에 대한 욕구, 부의 축적, 온갖 헛된 것을 모으려는 불타오르는 우리의 열정이며 절제할 수 없는 우리의 욕망이다. 반면, 우리는 가난, 무명, 겸손을 두려워하고 몹시 싫어할 뿐 아니라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것들을 피하려 한다. 쉴 사이 없이 자기 마음을 따라 많은 궤계를 꾸미며, 자신의 욕망과 탐욕의 목적을 얻기 위해 노력하며 그리고 또한 가난과 겸손을 피하려 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피곤하게 하고 쉼이 없어지는지를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다.

2)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런 올무에 걸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과정을 추구해야만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 없이 어떤 번성함을 바라거나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하며, 심지어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한다. 우리는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의 축복에 달려 있음을 믿고 신뢰해야한다. 자신의 근면, 분투하는 노력, 그리고 이웃의 호의로서 영예와 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그들에게는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통찰력이나 혹은 우리의 수고로 힘써 진보를 나타내려 하지 말고 다만 주님께서 이 둘을 번성케 하시는 한에 있어서만 해야한다.

3) 반면, 그의 축복은 어떤 역경이 온다 해도 우리가 행복하고 번성해 지는 길을 찾아 낼 것이다. 비록 우리가 매일같이 큰 영광과 커다란 부요를 가진 불경건한 사람을 관찰함처럼 우리도 거룩한 축복 없이 측량할 수 없는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주 아래 있는 그들은 최소한의 행복마

저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우리는 거룩한 축복 없이 어떤 것을 얻을 수 없으며, 만일 얻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라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그래서 어리석게 우리로 더욱 더 불행하게 만드는 일을 구하지 말자.

9.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염려하지 말자.

1) 만일 우리가 바라는 모든 번성의 원인이 하나님 축복 안에서만 발견되어지고 이것 없이 불행하고 비참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자신의 근면과 영민함과 인간 은혜에 의존하거나, 선한 행복관을 신뢰하여, 부요와 명예를 따르는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주께서 준비해 두신 몫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언제나 기대해야한다. 그 결과, 금지된 행동과 악한 궤계로 이웃을 약탈하고 해치는 일을 통해 부와 명예를 얻으려하지 말고 도리어 순결의 길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절제해야한다. 어느 누가 기만과 약탈과 악행으로 거룩한 복을 받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2) 순수한 생각과 의로우신 역사를 행하신 그 분에게서 복이 오는 이상, 그 복은 무질서한 부패성에서 벗어난 모든 이에게 미치게 될 것이니다. 더욱이 우리는 부를 더하고 싶어하는 의도나 명예를 추구하는 거짓 욕망을 제제해야 한다. 하나님의 도움을 신뢰한다면서 그의 말씀에 거스리는 일들에 목을 멘다면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자신의 입으로 저주한 것을 축복으로 번성시키는 것은 하나님께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3) 마침내 우리의 욕망과 소망을 따라 성공하지 않아도 그것이 무엇이든, 어쨌든지 조급함이나 그런 상태를 혐오함에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부와 궁핍, 명예와 경멸을 골고루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임을 알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설명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사람은 대개 사람들의 일반적인 욕심을 열정적으로 추구하지 않고 무익한 것을 위해 비천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참 그리스도인은 자기 번성을 자신의 근면, 근실, 행운의 탓으로 돌리지 않

고, 그것의 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것이다. 만일 그가 조그마한 진보를 보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진보할 동안 좌절로 고생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평범한 성공을 그리고 자기의 기대에 못 미침을 느낄 때보다 더 조용한 자세로 조용히 궁핍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4)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구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기 일이 주님의 손에서 조정된다고 믿기 때문에, 가장 큰 부와 능력보다 더 달콤하고 만족스러운 위로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고 자신을 그의 통치에 완전히 맡긴 사실을 다윗이 마음처럼 "...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젖 뗀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뗀 아이와 같도다" 말에 잘 나타나 있다. 시131:1,2

10. 주님의 길을 모두 공평하시다.

1)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조용하고 인내하며 사는 것이 유일한 경우라고 말할 수는 없다. 자신을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고 구체적인 모든 즐거움의 근거를 그의 선에 두지 않고 자아 부인을 할 사람이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무슨 일이든지 불행함을 느끼거나 운명의 탓으로 돌림으로서 하나님을 거짓되이 원망치는 않을 것이다.

2) 만일 우리에게 나타나는 무수한 사건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을 이런 방법으로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온갖 질고가 우리에게 찾아오며 하나가 지나면 다른 것이 찾아온다. 우리는 지금 전염병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으며 전쟁의 참화에 둘러싸여 있다. 다른 때, 우리는 서리와 우박으로 곡식이 떨어지고 가난의 위협을 받는다. 가끔,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 남편, 아내, 부모, 자녀 그리고 친척이 세상을 떠나간다. 화재로 가산이 소멸된다. 이런 사건들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생을 불평하고 자기 생일

을 저주한다. 태양과 별들을 비난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잔인하시고 불의하신 분인 양 원망하면서 훼방한다.

3) 그렇지만 신실한 신자는 이런 모든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자비와 아버지의 선하심을 묵상할 것이다. 만일 자신을 떠난 친척을 보거나 가정의 고독을 볼 때, 그는 찬양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만일 서리나 우박, 위협적 재난으로 밭이나 포도원이 무너진다면 그는 실망하거나 불만하지 않고 확신으로 견딜 것이다. 이는 우리가 안내자이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의 목장의 양"이기에 그가 필요한 음식을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다. 만일 질병과 싸운다면 악한 마음으로 경멸하거나, 오래 참지 못하여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영원한 아버지의 공의와 선하심을 생각하고 때리시고 고치시는 그 때에 인내로 성장할 것이다.

4) 요컨데, 일어난 일이 무엇이든지 주님에 의해 예정되었음을 알 때 그의 통치를 거절하는 교만의 죄를 범치 않고 그에게 자신이나 모든 것을 위탁하기 위해 그것을 평안한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드릴 것이다. 그 때문에 불행이나 운명을 불평하며 역경을 이기기 위하여 고행에 몰입하는 이방 철학자들의 어리석고 가벼운 위로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가치가 있든 없든 모든 사람들에게 몰려오는 세상은 우맹스럽고 잔인한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을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참된 헌신의 원리는 하나님만이 번성과 역경의 안내자요 통치자며 모든 선악을 가장 공평한 의로 나누어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데 있다.

제 3장 인내로 십자가를 짐

1. 십자가 짐은 자아부인보다 더 어렵다.

1)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높은 수준에 이끌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명령은 제자에 대한 그리스도의 적절한 요구이다. 주님께 부름 받은 성도는 고달픔으로 가득 찬 고난의 생활을 각오해야한다. 그들이 여러 시험을 당함은 거룩한 아버지의 뜻이다. 그는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여 모든 자녀들도 이 길을 따르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항상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일지라도 교묘한 시험을 당하셨다. 고난을 끊임없이 당했을 뿐 아니라 모든 생활이 온통 십자가 지는 생활이셨다.

2) 사도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주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 대신 보이신 인내의 본을 우리가 어찌 외면 할 수 있겠는가? 사도는 “그를 닮아 가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가야할 길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역경과 참화와 같은 많은 불행을 견디며 환난을 당하며 큰 죄악의 수렁을 피해 하늘 영광에 이르려면 그의 고난에 참여함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된다.

3)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안다”면,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알 것이고, “그의 죽음에 참여할 때 그 부활의 영광을 나누는 것”이라 했다. 십자가 고통을 가볍게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 우리가 큰 역경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더 확고하게 될 것이다. 이 교제로 말미암아 역경 자체는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의 행복과 구원의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마16:24, 마3:17, 17:5, 히5:8, 롬8:29, 행14;22, 빌3:10.

2. 십자가는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1) 우리 주님은 아버지에 대한 복종을 증명하기 위해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계속적으로 지고 살아야 할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우리는 어리석은 교훈이 아니라면 육신에 모든 것을 귀착시키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힘들 때마다 과장된 힘을 쉽사리 생각하여 불가능한 생각들을 잘 받아드린다. 마치 은혜 없이도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자만과 교만이 우리를 자극시키는 헛된 육적 확신으로 끌려간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유약함을 경험으로 증명할 때만 이 허욕을 제압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겸손, 궁핍, 친구의 죽음, 질병, 참화로 인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때 우리는 이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곧바로 그 안에 묻혀버린다. 겸손할 때 우리는 고난의 짐을 지고 바로 서기 위하여 그가 주시는 능력을 구하게 된다.

2) 자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강하다는 사실을 안 위대한 성도들조차도 시련을 통해 더 깊은 지식으로 나가지 않을 때, 자기 용맹과 담력에 속한 것이라는 거짓 확신을 가졌다. 이 교만된 생각이 다윗의 말에 잘 나타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번성이란 생각이 우리를 너무 어리석게 하고 감각을 잃어버리게 함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기 보다 자기를 의지하는 생각에 떨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3) 이런 일이 위대한 선지자에게 일어났다면 누가 두려워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겠는가? 많은 성도들이 번성을 위해 극기와 인내로 아첨하지만, 막상 역경을 당해 그 저항이 무너질 때는 기만당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영적 질고로 경계 받는 신자들은 겸손을 배운다. 육적 확신으로 어리석은 강탈을 당할 때 오직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피난처만을 가질 수 있다. 그들은 이런 종말을 당할 때, 다가오는 강한 요새, 거룩한 피난처를 그 안에서 맛보게 되는 것이다.(시30:6-7)

3. 십자가는 우리를 소망스럽게 만든다.

1)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만든다”고 바울은 가르쳤다. 환난 중에 있는 신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약속으로 우리는 자기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참고 견딤으로 참된 일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언제나 자신의 약속대로 성도들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이 인내를 통해 증명되기 때문이다. 역시 인내란 소망을 견고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확실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의존하지 않으면 그들은 확실한 은혜를 떠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은혜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흘러나오는지를 알고 있다. 만일 우리 자신의 덕에 관한 곡해를 버리고 아첨하는 자리로 이끄는 외식을 알 때 우리는 자연히 위험한 교만으로 떨어지게 되어있다. 우리가 겸손할 때만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넘어지지 않으며 절망으로 가라 앉지 않는다. 이 승리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래를 진리로 확고하게 하셔서 자기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2) 비록 그들이 단순한 이유들이지만 십자가 시련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보이기에 충분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장점을 충분히 알기 위해 자애의 어두움에서 벗어날 최소한의 능력이 없고, 자기를 불신하는 우리 자신을 이해할 능력도 없고, 모든 신뢰를 하나님께 두는 것만큼 자신을 불신할 능력도 없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로 보존되기 위하여 온전한 도움이신 하나님만을 한없이 신뢰할 능력도 없고, 그의 약속의 참되며 신실함을 알기 위해 그의 은혜 가운데 계속 거할 능력도 없으며, 그리고 소망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약속의 확실성을 경험하는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다. 로마서5:3,4

4. 십자가는 복종을 가르친다.

1) 여전히 주님은 자기 자녀들의 인내를 훈련하여 복종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정말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것 외에 다른 것에 복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성도들을 물리침이 없이 그들을 쓰시기 위해 그들에게 부여하신 은혜를 이런 방법으로 시험하신다. 하나님의 종들이 고난 속에서도 강직하고 견고한 은사를 드러낼 때 그들의 인내를 시험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는 표현은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거절함이 없이 순종으로 헌신을 증명한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의 연단을 받은 우리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했다.

2) 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탁월한 인내의 은사에 대해 확증을 얻기 위하여 훈련의 필요성을 누가 부인하겠는가? 그러나 사람들은 인내를 당연한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기회를 주셔서 약하고 쓸모없는데서 그 덕을 보존하려고 바르게 행하는 것이 바로 성도를 훈련하는 최상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고난이 없다면 인내도 없기 때문이다.

3) 역시 그들은 자기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십자가로 복종에 대한 교훈을 배우게 된다. 만일 모든 일이 그들 욕망에 따라 진행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쎄네카가 ”하나님을 따르라“는 격언으로서 역경을 인내로 이겨나가도록 권한 것은 고대의 관습이었다. 이것은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온유로 징계를 받아드릴 때만 신의 멍에를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하늘 아버지께 복종하는 것이 합당하다면 이 복종에 익숙하도록 모든 방법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하지 말아야한다. 창22:1,2, 벧전1:7

5. 십자가는 우리를 징계한다.

1) 우리가 어떤 안락과 탐욕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육은 주님의 멍에를 벗어

려고 얼마나 열심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복종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너무 먹여 길들이지 못하는 말처럼 이 육은 우리와 함께하며, 전에 고삐에 매여 복종하던 말이 불같이 온순하지 않기 때문에 제 주인을 따르지 않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일이 우리 각자에게 계속 보여진다는 것이다. 우리가 "비대하여" "기름으로 덮여 있으면" 우리를 먹이고 기르신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의 선하심을 생각하여 그를 사랑하도록 이끌지만 너무 배은망덕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끊임없는 방종으로 질식당해 의도적으로 부수는 버릇이 권징으로 제제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그럴 때 우리는 부를 얻을 때 교만하지 않으며, 명예를 가질 때 자만하지 않고, 번성과 건강의 복을 받을 때 무례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육적 교만을 대적하소 금하고 죽이기 위해 십자가를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신다. 또 그 분께서는 우리 각자를 자신의 유용한 도구나 전체의 수단으로서 그렇게 하신다. 왜냐하면 같은 질병으로 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거나 혹은 같은 치료의 필요성이 우리 모두에게 똑 같지 않기 때문이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십자가로 훈련된 다른 사람을 보는 이유이다. 신령한 의사는 모든 환자의 건강을 다루신다. 그는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부드러운 약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강한 방법으로 치료하실 뿐이지 치료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예외 없이 세상은 모두 병들었기 때문이다. 신32;15

6. 십자가는 회개를 만든다

1) 더욱이 우리의 가장 자비로운 아버지께서 우리의 미래의 약점을 가리우실 뿐 아니라 복종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 과거의 허물을 당연히 고쳐주신다. 그러므로 온갖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과거 생활을 즉시 점검해야한다. 그렇게 될 때 응당히 당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먼저 자신의 죄를 스스로 기억하기 때문에 인내의 권면

의 자리로 나가야한다고 속단하지 말아야한다. 성경이 가르친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정죄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역경 중에서 알려주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이다.

2) 그러므로 난관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우리 아버지의 자비와 친절을 인정하며 우리 안녕이 계속 증진됨을 인정해야한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파멸로 떨어뜨리려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세상 정죄에서 건지려고 고난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이 생각은 우리를 다른 성경 곧, “나의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의 책망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듯이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으로 이끈다. 우리가 아버지의 채찍을 인정하여 악행으로 강퍅케 된 절망적인 사람들의 반역하는 것을 닮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스스로 유순한 자녀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사도가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니라”고 지적한대로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심으로 그에게 돌아오게 아니하셨다면 우리를 멸하셨을 것이다.

3)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의 크신 관심을 보이실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참을 수 없다면 극히 잘못될 것이다. 성경은 신자와 불신자와의 차이를 지적한다. 후자는 참을 수 없는 혹독한 지경에 있는 옛 노예가 채찍을 참을 수 없는 것 같고 전자는 귀하게 출생한 자녀처럼 회개의 책망함으로 유익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서기 좋아하는 곳을 선택해야한다. 이 주제를 다른 곳에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히 취급한 것으로 만족하자. 고전11:32 잠3:11, 12 히12:8..

7. 박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한다.

1) “의를 위한” 핍박이 주어질 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한 유일한 위로의 원천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섬기는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얼마나 큰 명예인가를 기억해야한다. 우리가 복음을 방어할 때 고난을 당하거나 어떤 의로운 원인을 나타냄이 저지당하는 것을 가리켜 의를 위한 핍박이라 한다. 우리가 사탄의 거짓에 대해 하나님의 진리로 방어하거나 혹은 불의와 손해에 대해 착하고 순결한 사람들을 보호할 때, 우리 삶, 우리 소유, 우리 평판의 위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증오와 분노를 당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섬김에 자신을 헌신할 때 슬퍼해선 안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되다 하신 것을 스스로 불행하다고 말해선 안된다. 가난 자체는 불행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추방, 경멸, 수치, 투옥은 역시 불행한 것이고 모든 재난에서 오는 죽음이란 불행의 마지막이요 최악의 상태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은혜를 주실 때 모든 일에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안녕을 위해 함께 일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육체의 거짓 견해에 동조하는 것 보다 차라리 그리스도께 인정받음으로 만족하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고난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실” 때 언제나 사도처럼 기뻐할 수 있다.

2) 그것은 무엇인가? 만일 순결과 선한 양심을 가진 우리가 악인의 악행에 의해서 우리 재산이 약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가난 때문에 무시당한다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한 우리의 참된 풍부를 증가시킬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참예하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고문당하고 경멸당한다면 우리는 그것에서 자유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확고히 내리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책망과 수치로 더러워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현재 생활의 그림자 같이 지나가는 즐거움보다 과소 평가함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마2:10, 행5:41.

8. 박해는 영적기쁨을 가져온다.

1) 성경은 우리가 의를 지키려함으로 당하는 모든 학대와 불행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기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거나 영적 기쁨으로서 주님이 허락한 고난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 극도의 배은망덕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시련과 십자가 같은 타입은 신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말한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상한 자존심에 대한 고차원적 공격은 백 번의 죽음보다 더욱 더 참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박해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오는 비난이 기다린다고 바울은 경고했다. 다른 곳에 바울은 우리는 그를 본받아 “선악간 직고하리라”고 하며 격려했다.

2) 더욱이 우리는 모든 악함과 슬픔의 의식을 떨쳐버릴 때 기뻐하라고 요구한다. 성도들이 슬픔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슬픔으로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면 십자가 지는 어떤 인내를 발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가난 속에 고난이 없고, 질병 속에 고민이 없고, 모욕 속에 고난이 없고, 죽음 속에 공포가 없다면, 이런 고난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용기가 되고 얼마나 안정이 되겠는가? 그러나 고난 자체로 인하여 각자가 우리의 마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드린다면 신실한 자는 슬픔을 저항하고 극복하려고 실제적인 힘을 보여줄 것이고 많은 수고를 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예민하게 자극시킬 때 인내할 것이고 무절제의 폭발이 있을 때 하나님의 경외로 인하여 절제하게 될 것이다. 기쁨과 유쾌함은 슬픔과 서글픔으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 위로 속에서 안식할 때 나타날 것이다. 벧전4:14 딤전4;10 고후6:8.

9. 십자가는 우리를 달라지게 만든다.

1) 신자가 인내하며 절제하려고 자연적 슬픔의 감정과의 싸움에 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바 되

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후4:8-9) 인내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 자신을 고생시키고 어떤 슬픔을 느끼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옛날 스토익 철학자에 의하면 어떤 위인은 자신의 인성을 제거하고 역경과 영화을 접하지 않고, 기쁨과 슬픔으로 행하지 않고 돌과 같이 냉혹히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이런 교만된 지혜 속에 무슨 유익이 따르겠는가? 그들은 사람 속에서 발견할 수 없고 존재할 수 없으며 인간의 생활로부터 그것을 제하려는 단순한 타입의 인내를 발견하고자하는 욕망에서 나온 인내의 이미지를 추구했다.

2) 오늘날 고민하고 슬퍼하고 심지어 고독 속에서 슬퍼하는 것이 그릇되었다고 생각하는 현대 스토익파들이 그리스챤 가운데 있다. 이런 극단적인 견해가 놀라움 외에 다른 것을 만들 수 없는 실제적인 사람보다 야심가들로부터 더 많이 나타난다.

3)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인이신 예수께서 말씀과 모범으로 정죄하신 거칠고 엄격한 철학과 상관하지 말아야한다. 이는 그분이 이웃의 참화뿐 아니라 자신의 참화를 보고 애통하고 슬퍼하였기 때문에 그는 자기 제자들에게 다른 어떤 방법을 가르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세상은 기뻐하겠으나 너희는 울며 애통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또 그는 슬픔을 악덕이라고 부르지 않고 애통하는 사람에게 복을 공언하셨다.

4) 만일 그가 모든 눈물을 정죄하신다면 그의 몸으로부터 피눈물을 흘리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정죄하겠는가? 만일 모든 두려움이 불신앙으로 매도된다면 우리는 그를 절망케 하고 놀라게 하는 근심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만일 모든 슬픔이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의 영혼이 "죽기까지 고민하였다"는 고백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는가? 요 16:20, 마5:5,눅22:44.

10. 십자가는 복종을 배우게 한다.

1) 헌신된 마음이 절망에서 보호받기 위해 이런 일이 언급되어져야만 한다.. 그들이 슬픔에 대한 자연스러운 경향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인내를 향한 의욕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해야한다. 이는 절망은 그들의 인내를 지나치게 실족시킨 사람과 스스로 의미 없는 담을 만들 때, 사람이 강해지고 용기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마지막 상태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성경은 그들의 역경으로 심한 고난을 당할 때 부서지지 않고 극복하는 성도들의 인내를 예찬하고 있다. 그들이 심한 고난을 당하지만 영적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그들이 근심으로 눌려있고 실망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향하여 올라서는 것 때문에 그러한다.

2) 동시에 우리의 자연적인 느낌은 경험을 대적하는 덕을 피하거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음에 싸움이 일어난다. 그러나 우리의 헌신에 대한 열정은 우리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난관과 싸움하게된다. 이런 갈등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한 곳에서 잘 표현되었다.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가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할 때 베드로는 반항과 탐욕에 이끌렸다.이 경우 그의 순교는 별로 칭찬을 받지 못할 뻔했다. 그러나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뜻에 가장 위대한 열정으로 복종한다해도 자기의 인간적 감정을 흔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내적인 싸움으로 산란해 있었다. 이는 그가 자신을 위하여 품고있던 피 흘리는 죽음을 생각했을 때 두려움이 엄습했으며 빨리 도망가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두려움이 지나갔으며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드릴 수 있었다.

3)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모든 반대되는 경향으로 승리하고 그의 계획을 복종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큰 경외심과 무한한 복종으로 채우려는 소원이 넘쳐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할지라도, 심지어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큰 시련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이다. 언제나 역경의 침이란 우리를 해치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질병으로 고생을 당할 때

회복을 위하여 애통하며 부르짖음으로 기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가난으로 억압을 당할 때 고독과 회한을 느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불명예를 당하거나 경멸을 당하거나 고난를 당할 때 숨쉬기도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우리가 친구들의 장례식에 참석할 때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4)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뜻에 복종하려는 위로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심지어 슬픔, 탄식, 눈물의 고통의 폭풍이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갈 때 기쁨의 마음으로 인내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런 반성을 통해 용기를 얻어야 할 것이다. 요21:18

11. 십자가는 우리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

1)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결국 철학자의 인내와 크리스챤의 인내의 차이점을 간단히 증거한다. 이는 소수의 철학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한 고생을 받아드리는 것을 높이 평가하거나 그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렇게 멀리 떨어진 사람들조차도 포기가 필요악이라는 점이라는 다른 이유를 말하지 못한다. 그를 저항하는 노력이 헛되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종해야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만일 우리가 필요성에 따라 하나님만을 복종한다면 그로부터 피하자마자 복종을 중단하기 때문이다.

2) 그러나 성경은 다른 빛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명하신다. 먼저는 공의와 공평성으로 그 다음에는 우리의 구원의 완전을 향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인내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권면은 다음과 같이 가난이나 추방이나 감금이나 책망이나 질병이나 사랑하는 자를 잃음이나 그와 같은 유사한 참화로 고생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우리는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상관없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치 말아야한다. 더욱이 그는 언제나 공평으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무수한 일상의 죄가 그의 긍휼 안에

서 우리를 괴롭히는 일보다 더 심각하고 무거운 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육이 질식을 당하고 우리의 육체적 충동이 우리중의 최상을 얻지 못하여 단기적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하여 멍에에 익숙케 하시는 것이 합당한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공평과 진리가 참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허물없이 불평이나 반역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필요성에 복종하기 위해 냉혹한 철학적 절제를 더 이상 용납하지 말아야한다. 그러나 우리는 저항하는 것이 그릇되기 때문에 응수하는 효과있는 산 음성을 귀담아 들어야한다. 우리는 인내치 않음이 하나님 공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인내로 족한 줄 알아야 한다.

3)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유익케 하고 번성케 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장 자비로운 우리 아버지는 십자가를 겪게 하심으로 구원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 교훈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 만일 역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하다면 어디서 평화로운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견딜 수 있겠는가? 만일 우리가 그들을 인내한다면 필요에 대한 항복이 아니라 유익에 대한 복종이 되는 셈이다. 이런 고려가 드러남은 우리가 십자가로 인하여 억압을 더욱 더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영적 기쁨은 더욱 더 충만해 질 것을 보인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이 기쁨으로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다. 만일 주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희락의 마음에서 온다면 - 이 감정을 억누룰 것은 없다- 하나님은 성령의 기쁨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반드시 물리치게 할 것이다.

제 4장 내세의 소망

1.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1) 우리가 당한 고난의 종류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항상 미래생활의 묵상을 위하여 현재생활의 (헛됨의) 멸시함에 익숙키 위하여 이런 목표를 주목해야 한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을 사랑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이런 어리석은 경향으로 깊이 기울어지지 않고 게으름에서 일으키시려는 탁월한 방법을 사용하신다.

2) 거룩한 영원을 향한 전 생활의 과정에 열정적으로 달려가지 않거나 그곳에 도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란 아무도 없다. 만일 그것이 죽은 후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라면 우리보다 전혀 저급하지 않은 말 못하는 짐승보다 더 낫지 못하다면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모든 개인의 의욕적인 계획, 오락, 행동을 철저히 점검한다면 우리는 그 모두가 이 땅의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하여 부요와 능력과 명예의 외적 광체의 현란함에서 오는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 마음, 저 편의 세계를 볼 수 없게 된다. 또한 탐욕과 야망, 다른 악한 욕망으로 채워져 혼란해진 마음은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한다.

3) 이것을 셈하기 위하여 주님은 여러 가지 심각한 불행으로서 이 세상의 헛됨을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신다. 그들 스스로 평안과 위로의 삶을 약속하지 않기 위하여 그는 전쟁이나 폭동, 약탈이나 다른 상처를 통하여 자주 흩어버리시고 괴롭히신다. 불확실한 부가 지나 간 후, 지나친 탐욕으로 갈망하지 않고, 그들이 소유한 바를 의존하지 않게 하려고 가끔 추방, 땅의 흉년, 불이나 다른 방법으로서 그들을 가난에 두시거나 최소한 그들의 번성을 제제하신다. 그들이 너무 자기 만족에 치우치지 않고 결혼생활에 너무 기뻐하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하나님은 파터너의 이별로서 괴로움을 격게 하시고, 악한 자녀들로 인해 겸손하게 하시고, 자녀의 결핍이나 손실로 인하여 시련을 당하게 하신다. 그러나 만일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에

게 더욱 자비로우시다면 그는 질병과 위험을 통하여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 땅의 모든 축복이 얼마나 안정성이 없고 지나가는지를 보여주신다.

4)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 자체가 안정성이 없고 문제와 불행으로 채워져서 실제로 어떤 점에 행복이 없고 소위 모든 축복이 불확실하게 지나가는 것으로서 끝없는 역경으로 혼합되어 있음을 배우는데는 오직 십자가의 훈련을 통하여 되어진다. 이런 순서에 의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사소한 것 외에 아무 것도 구하거나 기대할 것이 없고 오직 면류관이 있는 하늘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먼저 현재 생활의 헛됨을 버리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미래 생활을 갈망하고 묵상하는 쪽으로 기울어 질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다.

2. 우리는 이 생의 생활을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1) 이 땅의 생활에서 우리가 아주 경멸하거나 특별한 사랑을 쏟아야하는 양극단의 황금수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에 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근면한 노력을 드리거나 아니면 일시적인 고리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현재의 생활이 무수한 매력과 즐거움, 우리를 기쁘게 하려는 감미로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술에 현혹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거기에서 멀어져야한다는 요구에 우리는 큰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 만일 우리가 이 생의 축복을 끊임없이 즐기면서 산다면 무슨 결과가 오겠는가? 끊임없는 악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런 불행에 관하여 충분히 생각할 여유가 없을 것이다.

2) 오직 인생은 수증기나 그림자인 것을 배운 자에게 알려질 뿐 아니라 일반인조차도 그런 결과에 관한 잠언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이런 지식을 그렇게 유용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과 생명의 허사에 대하여 놀라운 많은 격언과 리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마치 영원한 일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임하기 때문에 조심성 없이 우리가 생각하고는 것으로부터 더 빨리 사라질 것이란 거의 없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무덤 속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눈앞에서 죽음의 이미지를 분명히 본다면 생명의 허무함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가끔 우리는 전혀 감동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란 매일 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존재할 때 우리의 철학은 단지 일시적이며 우리가 떠나자마자 사라지고 그 뒤에는 아주 작은 흔적을 남길 뿐이다. 그것은 환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박수와 같이 실존으로부터 멀리 사라져버린다.

3) 우리는 죽음을 잊고, 마치 이런 말조차도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죽는 사실조차도 잊어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만 하는 어리석은 꿈을 계속 꾼다. 잠시동안 어떤 사람이 한 날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격언을 기억나게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이런 진리를 인정하지만 너무 주의가 부족 때문에 완전한 생활에 대한 이상이 우리의 마음에 오가게 될 것이다.

4)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현재생활이 불행으로 채워져 있는 가능한 모든 증거에 의해서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하겠는가! 이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생이 하나의 큰 축복의 덩어리인 것처럼 그것에 대한 어리석은 예찬을 더욱 중지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가르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가 말씀으로 게으름에서 우리를 깨우실 때 세상에 대해 등을 돌리고 오는 세상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사모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의무임이 확실하다.

3. 현실의 복을 경멸해선 안된다.

1) 그러나 현세에 대한 우리의 저급한 판단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인생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배은망덕의 자리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한다. 비록 수많은 불행으로 채워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무시할 수 없는 복가운데 있음

을 인정해야한다. 그러므로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벌써 그 분에게 배은망덕의 죄를 범한 셈이다. 특히 이 생을 인정함은 모든 것이 자신들의 구원을 발전시키는 셈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선의 증인이 되어야한다.

2)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계시하시기 전, 이것은 최소한의 중요한 일에 대해 그 분이 우리 아버지로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며 매일 우리에게 내리시는 복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생은 우리에게 신적 사랑을 가르치기에 그 안에서 선한 연단이 없는 것처럼 어찌 그것을 감히 무시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될 거룩한 사랑의 풍성함 안에 있기에 정말 감사해야한다. 만일 성경에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약하지만, 자연 그 자체가 인생의 빛과 그 빛을 보존하는 도구와 수단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해야한다.

3) 더욱이 이 생이 거룩한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는데 주님 도우심을 생각함으로서 더욱 더 감사할 이유를 알게 한다. 왜냐하면 하늘 면류관을 쓴 사람들이 전쟁의 어려움을 승리하고 자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먼저 땅에서의 선한 싸움을 명하셨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우리의 소망과 갈망이 인생에 대한 충분한 계시에 불타는 마음으로 사모하여 신적 선하심을 미리 맛보게 하려는 것 때문이다. 우리 생이 그에게 감사해야만 하는 하나님 자비의 선물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때 세상에서의 일생이 불행이라고 당연히 생각지 않게 될 것이다. 앞서 본대로 그 방법으로서 본래부터 치우쳐 있는 기쁨의 삶에서 건짐을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4. 하늘과 비교된 이 땅은 어떠한가?

1) 우리가 죄 많은 생애의 애착으로부터 잃어지는 영광이 무엇이든지 더 나은 세계를 향한 욕망을 더 가질 수 있다. 정말 가장 위대한 축복이란 출생하

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 직접 맛보는 복이라는 것은 이교도들에게 사실이다. 하나님과 그 분에 대한 참된 신앙이 없다면 불행과 비참함 외에 다른 무엇을 맛볼 것인가? 친척들의 출생을 보고 애통하다가 그들의 장례식에 장엄한 축제를 거행하는 신디안들(Scythians)에게는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들 관습이 어떤 점에서 이용되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안의 참된 신앙의 지식이 없는 그들이 바랄 수 있는 복이 열심있는 신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교도들의 견해는 절망으로 끝난다.

2) 신자들이 이런 죽을 인생을 평가할 때 오직 불행뿐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목적이어야 한다. 그럴 때만 그들은 장래의 영생을 묵상하는데 있어서 부지런하고 기쁨으로 가득 찬 진지함을 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늘과 지상을 비교할 때 우리는 정말 현재생활의 모든 것을 잊을 뿐 아니라 심지어 경멸하고 천박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하늘이 우리 아버지의 땅이라면 이 땅은 귀향지요, 이 생은 여행지 외에 다른 무엇이겠는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실제생활의 관문이라면 이 땅은 무덤 외에 다른 무엇이겠는가? 이 죄악 세상에 거하는 것이 죽음으로 던져 넣는 것 외에 무엇이겠는가? 몸으로부터의 구원이 완전한 자유를 의미한다면 이 몸은 감옥 외에 다른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것이 행복의 극치라면 그것이 없다면 어찌 불행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피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땅의 생애를 하늘과 비교한다면 그것은 경멸되어야하며 실패로 인정되어져야 한다.

3) 그러나 현재 생활이 죄에 복종하는 하는 것 외에 우리 마음이 생활에 적절히 적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미워하지 말아야한다.우리는 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 안에서 남아 있을 준비를 한다할지라도 그 마지막을 바라보기 위하여 세상을 걱정하고 경멸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걱정은 안달이 나 인내치 못하는데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바울은 정말 자신이 구원을 위하여 바라고 탄식하는 것보다 육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운명을 탄식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뜻에 안식하면서 머물든지

떠나든지 이 둘을 모두 준비했다. 그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인정하였지만 그의 영광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주님에게 속한 것이라고 했다.

4)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죽는다"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의 결정과 그의 선한 즐거움을 향한 생사문제를 제한시키자. 동시에 미래의 영원과 현재 생애의 헛됨을 비교하면서 죽음을 열심히 갈망하고 끊임없이 묵상하자. 또한 죄의 노예 생활로 이 생을 떠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떠날 준비를 하자. 고후5:6, 롬7:24 빌1:20 롬14:7,8

5.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머리를 들고 위를 쳐다 보아야한다.

1) 스스로 크리스챤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갈망하는 대신, 너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넘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떨어질 가장 큰 참화가 죽음인 것처럼 그 말이 언급될 때마다 그들은 떤다. 우리의 자연적인 느낌이 이 생과 분리됨을 듣는 것이 놀라움을 던져준다면 그것은 우리를 놀라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압도하는 위로를 가지고 모든 두려움을 억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가슴속에 충분한 빛과 헌신이 없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이다. 만일 우리가 불 안정되고, 약탈당하고, 망하기 쉽고 깨지기 쉬우며, 메마르며, 부패한 우리 몸의 장막이 이후에 영원하고 완전한, 썩지 않은 하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무너진다면 우리의 믿음의 본성이 두려워하는 바를 갈망하도록 권유하지 않겠는가? 만일 우리가 방랑에서 본향으로 우리의 거룩한 하늘 아버지에게 돌아오도록 부름 받은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위로로 충만하지 않겠는가?

2) 그러나 영원하지 않은 것이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것을 인정해야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발견되어지지 않는 견고한 땅을 얻기 위하여 미래의 영원을 예상해야한다. 이는 바울이 신자들에게 우리의 몸을 벗기지 않고 새로운 옷으로 입혀지도록 죽음을 갈망

하기를 걱정하라고 분명히 가르치기 때문이다. 현재의 허무를 의식하지 못하는 짐승들, 심지어 벽돌이나 돌 같은 무생물들이 이 헛된데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와 함께 하기 위하여 마지막 부활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자연적인 이성의 빛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초자연적인 깨달음을 받은 우리들이 아닌가? 우리가 장래의 실존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부패를 떠나 우리 마음을 들어올리게 되지 않겠는가?

3) 그러나 나의 현재의 목적이 죽음의 두려움과 같은 이런 완전한 인내와 맛서서 논의하는 것이 불필요하고 맞지 않다. 처음에 나는 일반적인 주제에 대한 복잡한 토론을 취급하지 않는 것을 이미 선언한바 있다. 만일 그들이 응당 철학자들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다면 이교도들이 어떻게 죽음을 경멸히 여기는 지를 발견할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키프리안의 도덕론(Morality)을 읽도록 권면하고 싶다. 그러나 만일 그가 그의 죽음의 날과 부활의 날을 기쁨으로 바라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리스도의 학교에 정말 어떤 전진이란 없을 것이다.

4) 이는 바울이 모든 신자에게 이런 점을 강조하고 성경이 가끔 참된 기쁨의 동기로 우리를 공급하고 싶어할 때 그것에 대해 관심을 환기시키기 때문이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머리를 들어 위를 쳐다보라. 너희 구속의 날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신다. 그가 우리를 황홀경이나 폭넓게 깨우치시려고 계획하시는 일은 오직 슬픔으로 대경실색하게 하시려는 것임을 기대하는 것은 합당한 일인가? 만일 이것이 그런 경우라면 우리는 우리주인 되신 그 안에서 어찌 영광을 돌리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건전한 판단을 하면서 우리 육체의 우맹스럽고 어리석은 욕망을 거절하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모든 것의 가장 자극적인 사건으로 생각하고 열광적으로 사모하는 일을 주저하지 말자. 그리고 그것을 갈망할 뿐 아니라 심판의 날에 대해 탄식하고 한숨을 쉬자. 이는 그가 모든 악과 불행의 끝없는 대 혼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구주로서 오시기 때문이며 그가 그의 생명과 영광의 복된 기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고후5;4, 딛2:13, 눅21:28.

6. 주님은 영광가운데 오실 것이다. *마라나타*

1) 믿는 자의 온 가족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머리되신 그리스도를 더욱 닮게 하려고 그리스도는 “도살할 양 같이”되셨음은 사실이다. 그들이 하늘에 대해 생각지 않거나, 지나가는 쇼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 지평선 너머를 바라만 본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2) 불경건자들은 자신들의 부와 명예 속에 지내도록, 소위 마음의 안일을 즐기도록 그냥 버려두자. 자기의 자만과 사치를 자랑하고 온갖 기쁨에 둘러싸여 살려면 그렇게 하라고 하라. 악 때문에 빛의 자녀들을 싫증내고 자만의 간섭을 받아 탐욕의 노예가 되어 완전한 불법으로 스스로 자극을 받게 하라. 그러나 이것을 볼 때마다 신자라면 세상 저 너머를 바라보게 하자. 이런 참화아래 있는 그들은 평화로운 마음으로 어떤 난관이라도 헤쳐 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의 신실한 종들을 평화의 나라로 영접하실 날을 기다리심을 그들이 알기 때문이다. 그때 주님은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기쁨의 세마포를 입히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무한한 기쁨으로 환대하시고 자기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시고 자신의 즐거움에 참여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3) 그러나 이 세상에서 크게 악을 행하던 자들을 수치의 웅덩이에 던져 넣으실 것이다. 주님은 그들의 기쁨을 고민으로, 그들의 웃음과 환희를 슬픔과 이를 갊으로 바꾸실 것이다. 주님은 악인의 평안을 공포로 가득찬 양심의 고민으로 대치하실 것이다. 그들의 간음을 끄지지 않는 불 속에 던지게 될 것이고 그들이 혐오한 신실한 자들의 인내에 복종하게 하실 것이다. 바울에 의하면 주 예수님이 하늘로 강림하실 때 성도를 고생시킨 자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고생하는 사람에게는 안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4) 바로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다. 만일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절망으로 가라 앉을 것이고 이 세상의 헛된 즐거움으로 위안을 받을

것이다. 이는 시편기자 조차도 악인의 현재의 번성을 보았을 때 실족할 뻔하였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의인과 불의한 자의 마지막을 확인하기까지 안정을 다시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몇 마디로 결론을 내리자면, 신자의 눈이 부활의 능력을 바라볼 때만, 그 마음에서부터 마귀와 육과 죄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이길 수 있다. (롬8:36, 고전15:19 사25:8 계7:17 살후1:6,7 시73:2이하.

제 5장 현실의 바른 지침

1. 극단을 피하자.

1) 성경이 하늘을 우리의 목표라고 가르키는 것처럼 땅의 축복 역시 바로 사용하라고 충분히 가르치기 때문에 생활의 규율인 성경을 경시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자신이 생활의 유용한 도구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필요보다 차라리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일들을 우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순수한 양심으로 그것을 잘 사용하기 위해 이것 저것을 조절하는 중용을 배워야한다.

2) 주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가르치실 때 현재 생활은 하늘을 향해 여행하는 순례와 같다고 하셨다. 비록 이 땅이 대기실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여행을 늦추는 것보다 오히려 도움되는 복들을 잘 사용해야만 한다. 그래서 바울은 마치 사용하지 못할 자처럼 세상을 사용하고 되돌려 파는 사람의 마음으로 물건을 사라는 충고는 그만한 까닭이 있는 것이다.

3) 그러나 이것이 토론의 여지가 있는 질문처럼, 양쪽 오류에 떨어지는 위험을 극복하기 위하여 양극단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안전지대를 통과하자. 이는 어떤 위기로부터 온전히 절제하지 못한다면 방종과 사치스러운 시간을 맛보다가 모든 절제를 포기하는 약한 신자가 있기 때문이다. 또 그들 욕망 안에 놓여있는 치명적인 악을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 즉 절대적 유일한 필요에 한해서만 지상 축복을 허락한 것이다. 이런 충고는 가장 좋은 의도를 보이지만 너무 엄격하다. 이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있기 보다 다른 사람의 양심이 더욱 엄격한 규율로 나타남으로서 매우 위험한 잘못을 범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필요한 요구에 따라 제한시킴으로서 가능한 모든 일을 금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들에 의하면 마른 빵과 순수한 물 외에 다른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거의 허용되지 않았다. 다른 이들은 그들이 망하지 않으면 그 자신이 그들에 의해 망하는 두려움때문에 보화를 바

다로 던지라는 권고를 받은 더베(Thebes)의 크레이트(Crates)와 같이 더 심한 엄격함을 구했다.

4) 반대로 방종한 행위를 변명하는 것은 이 영원한 일에 사용되는 것을 제쳐두고 육체의 정욕에 빠지고 싶어하는 많은 현대인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유가 어떤 일에 의해서 제한을 받아선 안되고 우리는 결코 이것을 동의할 수 없음을 인정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하여 합당하다는 생각에서 사용하는 것이 개인 양심에 맞아야한다고 말한다.

5) 그러나 성경이 땅의 일에 대한 합법적인 사용에 관한 일반적 원리를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으로서 그것을 분명히 따라가야만 한다. 고전7:30, 31.

2.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참된 은혜는 자학을 금한다.

1) 우리가 생각하는 첫 원리는 창조자 자신이 그들을 창조하시고 예정하신 동일한 목적의 지도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은사의 사용이 그릇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그가 우리를 해롭게 하심이 아니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지상의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이런 목적을 신실하게 관찰하는 사람보다 더욱 더 적절한 규율을 관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2) 예를 들어 만일 우리가 여러 음식의 종류를 반드시 왜 만들었는지를 연구한다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고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을 위한 것이 그의 의도였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옷을 입는데 있어서도 그는 우리의 필요를 생각하실 뿐 아니라 적절성과 품위까지도 생각하셨다. 양떼, 나무들, 열매들, 그 외에 여러 방면에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 그는 그들이 은혜로운 질서와 향기로운 내음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도록 계획하셨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시편기자는 신령한 축복가운데서 "인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이라고 열거하지 않았을 것이

다. 또 성경은 모든 곳에 사람들이 그의 선하심을 찬양하기위하여 인류에게 이 모든 일을 주셨다고 선포하지 않았을 것이다.

3) 자연적인 소유조차도 우리가 그들을 잘 사용하는 목적과 범위를 충분히 보여준다. 주님은 우리의 눈을 꽃들의 아름다움에 끌리고 우리의 후각으로 향내를 즐기도록 하셨다면 그것을 취하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 되겠는가? 그는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놀라도록 하기 위하여 색깔을 만드신 일이 없으신가? 그는 금과 은, 상아와 대리석을 다른 금속이나 돌보다 더 귀한 것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움을 인정한 일이 없으신가? 한마디로 그는 우리의 필요보다 훨씬 먼, 우리의 관심에 가치 있는 많은 것을 만드신 적이 없으신가? 시104:15.

2. 참된 은혜는 자기학대를 금한다.

1)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면 피조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인간적인 철학을 버리자. 이런 악한 개념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합당한 즐거움을 빼앗아간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느낌을 약탈하고 의미없는 장벽을 제거하기까지 그것을 받아드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반면에 우리는 그들이 확고하게 제한시키지 않는다면 모든 것에 대하여 죄를 범하기 때문에 같은 열심을 가지고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한다. 우리가 관찰한대로 보증이란 그것에 대한 옹호자를 갖는다. 자유의 구실아래 없는데서 간단히 멈출 사람이란 없다.

2) 먼저 우리가 우리의 열정을 구속하고 싶다면 우리는 모든 일이 우리가 그들의 저자를 알고 인정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물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우리는 그에게 감사를 줌으로서 이 땅의 일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의 인자하심을 찬양해야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아함과 포도주에 빠진다면 우리가 헌신의 의무나 우리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겠는가? 만일 우리 몸의 지나침

이 가장 사악한 열정으로 몰고 가고 우리의 마음이 불결함으로 감염되어 우리의 선과 악을 더 이상 구별할 수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정이란 어디 있는가? 만일 우리가 자신을 찬양하고 우리의 화려한 복장과 찬양 때문에 다른 사람을 경멸한다면 옷 입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어디에 있는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옷 자랑과 맵시로서 부정한 것을 준비한다면 어디에 그런 것이 있는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겉옷의 매력에 고정되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정이란 어디 있는가?

3) 이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그것의 노예가 되도록 하려고 미친 듯이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대리석과 금으로 칠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은 석고와 같이되어버렸다. 말하자면 그들은 금속으로 고정되었고 색깔있는 우상을 닮기 시작했다. 음식의 향내와 향취의 달콤함이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어리석게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영적인 일에 대한 어떤 욕구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다른 자연 문제에게 대해 혐오감을 갖게 한다. 그러므로 은혜의 원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럽히도록 우리의 욕망을 굽게 한 것이 분명하다. 이런 원리가 "육체가 그 정욕을 채우기에 역부족이다"고 바울은 이미 선언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자연적 욕망에 자유의 고삐를 준다면 그들은 절제와 조절의 모든 속박을 벗어날 것이다. 롬13:14.

4. 적절한 삶을 살아가자

1) 그러나 우리의 눈을 현재생활에서 멀리하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묵상하는 것 보다 더 확실하고 더 간단한 방법이란 없다. 이로부터 두 가지 일반적인 원리가 나온다. 첫째는 바울의 규례에 의하면, "아내를 가진 이들은 아내가 없는 것처럼, 무엇을 사는 자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소유하지 못한 것처럼 이 세상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것을 더럽히지 말아야한다." 둘째는 우리가 가난을 조용히 인내하면서 배워야하고 풍성함을 절제하면서 즐겨야하는 것을 배워야한다.

2)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용하되 다 쓰지 않는 것처럼 사용하라고 명하신 분은 먹고 마시는 것의 모든 절제와 지나친 즐거움, 야망, 자만 그리고 우리 가정의 가구와 가정에서의 까다로울 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 수준을 끌어내리고 우리의 헌신을 무너뜨리는 모든 돌봄과 애정을 금하셨다. 옛 시대에 육체의 모양에는 큰 관심을 갖고 덕에 대하여는 무관심한 것은 게이토(Cato)에 의해서 잘 관찰되었다. 역시 육체에 깊은 관심을 갖는 자는 일반적으로 영혼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 옛 격언에 나온다.

3) 그러므로 외적인 일의 신자의 자유가 힘들고 빠른 규율에 의해서 제한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능한 작은 일에 빠져야 한다는 것이 이런 법에 확실히 복종하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는 인위적인 모든 것을 멀리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계속 의도적으로 훈련해야하고 사치스러운 모든 헛된 표현을 피해야한다. 우리는 우리 새 생활을 풍부하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한다. 고전7:29-31.

5. 궁핍할 때 인내하고 만족하자.

1) 다른 원리는 가난한 사람이 풍부에 대한 갈망으로 고통하지 않게 하려고 개인 생활의 인내를 배워야한다. 이런 절제를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학교에서 별로 발전이 없고 이런 발전을 만들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안에서 제자도의 어떤 증거를 거의 갖지 못한다.

2) 이는 땅에서의 일들에 모든 악이 수반될 뿐 아니라 개인이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사치 속에 있을 때 대개 반대되는 악을 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옷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큰 옷을 자랑한다는 뜻이다. 참된 음식으로 만족하지 않는 자는 값비싼 것을 바라기 때문에 불편하게 느끼고 어떤 경우가 되자마자 절제하지 못할 것이다. 성실과 겸손으로 채워져서 쉼이 없고 불만족이 자라는 사람은 명예를 차지하지 않으면 오만과 교만을 경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헌신에 신실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사고

의 모본을 따라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 아는 것”을 따라 가야 한다. 빌4;12.

3) 역시 성경은 땅의 일의 사용이 제한되는 제 3의 원리를 언급하고 이것이 자아부인의 규례에 대해서 말할 때 언급되었다. 이런 모든 일이 신적인 자비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는 뜻에서 그들은 우리의 돌봄을 보증하는 담보와 같고 어느 날에 계산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귀에 “우리의 청지기직을 셈 하라”는 경고를 듣는 것처럼 항상 그들을 통제해야한다.

4) 역시 이런 계산을 요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자. 절제, 근신, 절약, 겸손을 높이 천거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극단, 자만, 과시, 헛된 연출을 싫어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만일 우리가 사랑으로 강권하지 않으면 그의 축복의 관리를 증거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 자신의 입으로 우리를 정직과 순결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를 어리석고 우둔하게 만드는 모든 즐거움을 자신의 입으로 정죄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빌4;12, 눅16;2.

5. 당신의 거룩한 부르심에 신실하라.

1) 마침내 우리는 부름에 신실하도록 우리 생활이 모든 행동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명령하신 것을 주시해야한다. 이는 인간의 마음이 쉴 사이 없이 불타올라 쉽게 여기 저기를 쓸어가며 많은 일들을 둘러싼 욕망이 부적절하게 되는 것을 그는 알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리석음과 담대함으로 만들어지는 혼란을 막기 위하여 그 분은 생활의 다른 분야에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여하셨다. 아무도 그의 한계를 멀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생활의 직업과 소명 방면에 우리를 부르셨다. 모든 개인 생활은 모든 날을 불확실한 상태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하려고 주님이 허락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눈이 모든 행동을 측량하며 인간 이성의 판단과 철학의

판단과 아주 다르게 구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 독재에서 국가를 건지는 것보다 철학에 있어 더 위대한 영웅은 없다. 그러나 하늘의 심판자의 음성은 분명히 독재자를 죽인 개인을 정죄하신다. 모본을 열거하지 않는 것은 우리 계획 가운데 없고 모든 백성의 경우, 바울의 행동원리와 기초가 주님에 의한 우리의 소명임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자. 그의 소명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그의 일의 의무를 향한 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가끔 그는 찬양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어떤 일을 행하는데 성공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앞에 선할지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 용납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외에도 그의 생활의 여러 방면에 일관성이란 없다.

3) 우리의 현재의 생활은 항상 마음에 우리의 소명을 지킨다면 최상으로서 조절될 것이다. 아무도 자신이 자신의 한계성 저편에 있는 것이 그릇 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부르심과 싸우지 않는 바를 착수하는 그의 담대함에 이해서 유혹될 자는 없을 것이다. 앞선 계열 속에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개인의 일을 성취함으로 만족해야하며 주님이 그에게 놓았던 위치를 배격해서는 안된다. 사람이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그의 안내자임을 알 때 그의 돌봄, 노동, 수고 그리고 가진 짐들 때문에 별로 위로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위정자는 자기 직무를 큰 마음으로 수행해야한다. 한 가족의 아버지는 많은 용기를 가지고 그의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생활의 여러 국면에서 모든 사람이 더 많은 인내를 보여주며 모든 개인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일을 어깨에 짊어졌다고 확신할 때 그의 길의 어려움과 돌봄과 불행과 근심을 이길 것이다. 모든 개인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일을 어깨에 짊어졌다고 확신할 때 그의 길의 어려움과 돌봄과 불행과 근심을 이길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거룩한 부름을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되이 존경하고 높은 가치를 두지 않는 비천하고 야비한 일이란 전혀 없다는 사실로서만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Coram Deo!) 창1:28; 골1:1이하